

# 관·각·형에 살아 숨쉬는 위대한 예술혼

《홍선웅의 판각기행》 펴낸 홍선웅씨



이 책은 20년 동안 목판과 칼, 먹으로 옛 심성과 정을 되살리고, 고운 자연의 모습을 남기려 애쓴 작가의 발자취다. 발목이 시리도록 무시로 드나들어 눈으로 찍고 가슴으로 현상하며 손끝으로 인화한 작품집이다. 작가는 한 걸음씩 멈춰 필생의 업을 소개하고, 관·각·형에 살아 숨쉬는 선대의 위대한 예술정신을 설파한다. 이 책에는 고래의 먹판화를 잇는 작가의 끊임없는 노력이 담겨 있다.

가슴에 성조기나 알곳은 영어가 써어 있는 옷은 괜찮아도 한글이 써어 있으면 안되는 때가 있었다. 아이들의 천진한 얼굴이 그려 있는 옷은 요주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1980년대는 그랬다. 팝송은 괜찮아도 뺏속으로 파고드는 율음 섞인 노래는 안되는 그런 시절이었다. “그때는 그랬다”로 말을 아끼는 홍선웅씨(49, 판화가)는 실은 온몸으로 그 시절을 살아낸 사람이다. 미술교사였던 그는 《민중교육1》(실천문학사)에 기고한 글 〈통합정서로서의 미술〉로 1985년에 해직당했고, 1989년 전교조 결성으로 또 학교를 떠나야 했다.

쫓겨나기를 거듭하던 그가 스스로 교직을 접고 나와 자연과 작품 속에 침잠한 지 7년 만에 작품집과 전시회를 두 손에 들었다. 《홍선웅의 판각기행》과 ‘홍선웅의 판각기행전’이 바로 그것이다.

### 판각으로 형상화한 〈금강〉

《홍선웅의 판각기행》은 세부분으로 나뉜다. 1부 ‘먹판화의 아름다움’에서는 〈금강화곡〉 연작과 안동, 부석사, 선암사 등을 찾아가 만나고 다듬은 작품들을 풀어놓는다. 2부는 ‘목판화의 정신을 찾아서’ 인테강 화도와 팔만대장경, 문수산 판화공방이 있는 보구곶리 이야기로 작품의 한 줄기인 《화엄경》을 설명한다. 그리고 3부는 ‘진경판화 기행’으로 그가 창안한 진경판화의 진수를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우리교육》과 《인천민족예술》에 연재한 것을 다시 손보고 새 글을 덧붙인 것이다.

〈금강화곡〉은 신동엽 시인의 〈금강〉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늘 그의

주위를 맴돌고 의식에 깊이 뿌리내린 시인의 역작을 새기고 찍었다. 그는 〈금강〉을 눈물을 흘리며 밤새워 읽었고, 교사 시절에는 시험지 뒷면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를 쓰곤 했다. 이렇듯 그에게 ‘가슴으로 받은’ 신동엽 시인의 작품을 새기는 것은 언젠가 꼭 완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됐다.

“〈금강화곡〉은 앞으로 스무편은 더 해야 합니다. 책에는 여섯 점이 있고, 전시회에서도 몇 점 소개하지만, 언젠가 연작판화로 꼭 완성해야 할 작품이죠.”

그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의 대변인을 맡았을 만큼 달변에 다변임에도 이상하리만큼 〈금강화곡〉에 대해선 말을 줄였다. 실제 그런 그의 ‘먹먹한 가슴’은 작품에서도 잘 드러난다. 시에 대한 최고의 겸양과 존경을 표하는 듯, 그의 그림은 조심스러운 선으로 가장 작게 내려앉아 있다.

〈금강화곡〉에 이어 안동과 섬진강변을 따르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가 가장 정감 있는 길로 꼽는 “제천과 단양의 월악산 국립공원을 지나 소백산 관광목장이 있는 저수재를 넘어 예천으로 가는 길”은 물론, 하선암과 사인암에 이르는 길을 “괴상하다. 하늘이 이런 그림을 내려 보내서 속된 정과 범상한 운치가 털끝만치도 없게 했다”는 추사 김정희의 감상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지례예술촌, 부석사의 보장각, 학봉 김성일 종택의 운장각, 고산서원과 병산서원, 선암사, 송광사 등에서 얻은 감흥과 깨달음이 그 뒤를 잇는다.

“목판화와 민족자주정신의 발흥은 팔만대장경에서 시작됐습니다. 팔만대장경이 무신정권의 발의에 따라 부처님의 공덕을 비는 과정에서 새겨진 것이지만, 우리민족의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크나큰 도구입니다. 계급과 계층이 전혀 상관없이 전민족이 참여한 역사(役事)죠.”

### 목판화의 근간은 팔만대장경

그는 학자들이 저마다 다르게 말하는 경판 수와 주로 쓰인 것이 산벚나무인지 자작나무인지에 대한 분분한 의견에 아연해하고, 어디서 판각

됐는지에 어지러운 견해에 혼란스러워도 팔만대장경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이는 “책을 다 읽고 나면 홍선웅이 우리 판화의 근간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즉 팔만대장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판각문화의 뿌리는 굉장히 튼튼하고, 고려까지 뻗어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가 팔만대장경을 목판화의 근간으로 삼은 데는 《고려사》《동국이상국집》 등 옛 서적부터 허홍식의 <대장도감판 대장경을 조성한 배경과 사상>, 천혜봉의 <고려 팔만대장경과 강화경> 등 논문과 기초연설문까지 헤아린 노력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껏 남아 있는 고려와 조선조의 작품들을 보며, 천년을 바라보는 선대의 예술정신이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고 확신한다.

“경중에 꽃은 화엄경이고, 화엄경 중 으뜸은 입법계품이라고 합니다. 입법계품은 구도기로 선재동자의 수도과정을 그린 것이죠.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마음이 쓰이고 가슴에 남아 그것을 꼭 완성하고 싶어요. <금강화곡>과 더불어 연작으로 마무리해야 할 작품입니다.”

그가 이 책에 소개한 <선재동자 구도기> 네 편은 그런 그의 염원을 잘 담고 있다. <선재동자가 보현의 행을 구하다>는 한지에 찍은 먹판화로 까까머리 선재동자의 뒷모습이 너무도 천연스러워 불심은 본래 이런 것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문수보살이 보현의 행을 계승으로 권하다>는 선재동자가 걷고 절하고, 말씀을 듣는 모습이 불교의 여러 상징과 더불어 둥글게 배치돼 있다.

#### 진경산수화 이어받아 진경판화 창안해

진경판화는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를 이어받아 그가 창안한 것이다. 풍경을 보고 느낀 감흥을 살려 진경을 판화로 표현한 것이 바로 진경판화다. 그의 진경판화 작품은 채색한 부분도 먹빛이 살아 있는 은은한 다색목판화다. 책에 소개한 진경판화 작품은 사인암, 성류굴, 쌍계사, 회랑대, 자월도, 문수산성, 상당산성, 미황사로 남녘 각지에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증명한다.

“진경판화는 한 작품 완성하는데, 꼬박 한 달이 걸립니다. 답사하고 감상하고 구상하고, 밑그림 그리고 또 목판에 붙여 새기고, 찍어내는 작업이 한 달을 온통 채웁니다.”

그렇 만도 하다. 부지런히 해도 새기는 작업만 일주일 이 든다는데, 농익은 완상을 끌어내고 칼끝을 살려 마음먹은 색으로 표현하는 것은 결코 수월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진경판화를 창안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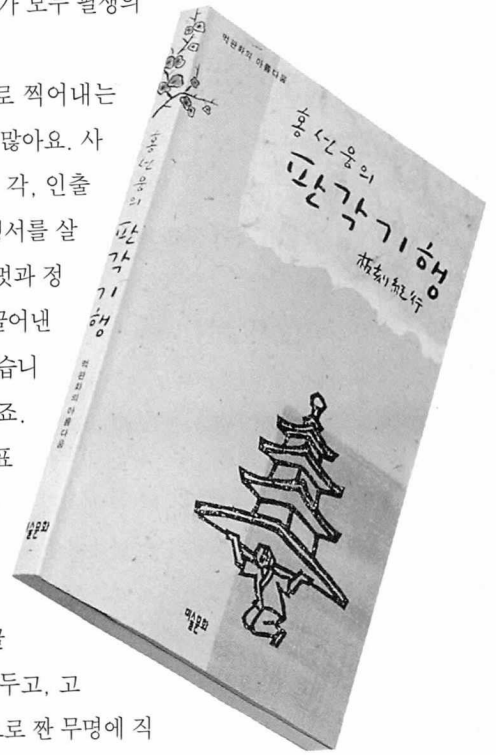
“산업화, 도시화한 현실에서 북한산도 무슨 공원인 양 도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 깎아 골프장 짓는 이때, 좋은 자연을 남기고 싶어요. 이러했다고 증거하고 싶은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중국에 경도됐을 때, 우리 산천을 그린 겸재처럼 우리 땅을 답사해 아름다움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는 이처럼 앞으로 꼭 해야 할 작업을 책에서 한 장에 하나씩 소개하는 것으로 다짐을 대신한다. 1장의 <금강화곡>, 2장의 <선재동자 구

도기>, 3장의 진경판화가 모두 필생의 업이다.

“우리 종이에 먹으로 찍어내는 먹판화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사라져간 우리 고판화의 각, 인출의 맛을 통해 우리의 정서를 살려낸 작가, 우리의 옛 멋과 정을 오늘의 삶 속에서 끌어낸 작가라는 평을 받고 싶습니다. 열심히 오래 해야죠. 먹이 지나는 대단한 표현력을 연구하고 고집하고 싶습니다.”

먹색을 살리기 위해 가장 좋은 한지를 골라 적어도 5년은 쟁여두고, 고운 색을 얻기 위해 손으로 짠 무명예 직접 물을 들이는 작가가 다문 가슴속에 묻어뒀던 바람을 풀어놓는다. 12월 11일까지 인사아트갤러리에서 열리는 ‘홍선웅의 판각기행전’은 그의 바람이 확인되는 자리일 것이다. —차정신기자



미술문화/A5S/216면/12,000원

#### 다음 작업은 <통일연작>

그의 공방은 보관실과 작업실을 나눠 판과 종이, 염색한 무명을 제대로 갖추고 보관한다. 이는 판·각·형을 모두 중시해 그림으로만 국한하지 않은 선대의 뜻을 잇고자 함이다.

그는 천연염색한 것 가운데 어느 색깔이 좋냐는 질문에도, 목판화가 왜 좋냐는 물음에도, 아이들의 반응이 궁금하냐는 무언에도 부끄러운 듯 붉어진 웃음으로 답했다. 그 미소는 그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겸재나 김홍도, 박수근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선배들의 작품이 한 장면씩 머릿속을 훑는 듯, 한 걸음씩 사이를 두고 웃음을 흘렸다.

이렇게 마냥 부끄러워하는 작가가 <갈아엮은 땅>(학교재)으로 기억하는 독자라면, 달라진 그의 작품에 무척 놀랄 것이다. 나무끼는 깃발과 웃는 듯, 일그러진 듯 굵게 주름진 얼굴에 강렬한 색으로 마감한 그의 작품은 지금의 ‘고요함’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는 그 차이에 대해 “조용한 것을 좋아한다”는 말로 응대한다.

잘 뒤인 신작로에서도 마주 달리는 차를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한 보구곶리에 공방을 마련한 것도, 박수근의 정적인 표현에 반한 것도 모두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그의 성품에서 비롯됐다. 공방을 나서며 조용한 그가 조금은 수선스럽게 안내한 곳은 바로 북녘이 보인다는 염하강 하구였다. 그의 손길을 따라 안타깝게 응시했지만, 질은 안개가 가로막아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는 안개가 뜨고 지는 것으로, 구름이 끼고 걷히는 것으로 북녘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트함을 오르내릴 것이다. 그래서일까. 책에서는 담담하게 스치듯 지나간 통일 이야기를 한다. 그는 통일이 되는 그날, 흠뻑 흘릴 눈물로 먹판화를 찍을 것이다. 그의 바람은 <금강화곡> <선재동자 구도기> 뒷자리에 <통일연작>을 세웠다.